



쿠스터 댄스 컴퍼니

### ‘견우직녀, 은하수 강건너’

7월 무등풍류 먼...내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0일 ‘견우직녀, 은하수 강건너’를 주제로 무등풍류 먼 행사를 펼친다.

무등풍류 먼은 절기와 명절 등을 주제로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칠월칠석(음력 7월7일) 까치가 놓은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설화를 아이들에게 국악으로 구연한다. 구연이 끝나면 절기체험 ‘붕숭아 물들이기’를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이며, 선착순 40명 한정으로 전화(062-670-8802)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는 토요일 공연인 15회차 공연으로 쿠스터 댄스 컴퍼니 무대가 펼쳐진다. 쿠스터 댄스 컴퍼니는 예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젊은 예술가들로 이뤄진 예술단체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새로운 시각의 공연예술로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연은 궁중정재무용에서부터 민속무용, 창작무용 등 한국 춤의 다양한 형태와 음악을 선보이는 무대다.

‘과거와 현재는 공존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옛것의 멋과 흥 그리고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해 한국 춤의 매력을 선사한다. ▲처용무 ▲송화영류교방굿거리춤 ▲춘앵무 ▲소고춤 ▲한량무 ▲사랑가(창작) ▲잔영 ▲자화상(창작) ▲서한유류 버구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설공연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관람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 “고유한 색채 지닌 작품으로 시민에 더 가까이”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

“시립극단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색깔을 갖고 나아갈 것인지에 중점을 둘 생각이에요. 극단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2012년 시립극단 재창단 때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으로서 오랜 시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지역 연극인들이 극단에 갖는 염원이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4년 동안 예술감독 공석 체제로 운영돼 온 시립극단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유한 색채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지역 브랜드 공연으로서의 가치 또한 지닙니다.

원 감독은 극단 내 인적구성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작품마다 배우를 뽑는 기존 작품제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호흡으로 운영되는 시즌배우제 등을 고려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배우들이 극단에서 약 10개월간 다양한 작품을 경험하고, 또 배운 것들을 단체에 다시 돌아가서 펼쳐내고요. 광주 연극인들과 함께 상생·협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역 연극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광주시립극단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역 관립극단으로서 공공재를 통해 만들어진 양질의 공연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선보여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명작공연을 올리거나 창·제작 레퍼토리 등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연극이나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객들과 상시로 만날 수 있도록 소통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지역 배우들과 화합하며 광주 연극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 속에 머물며 사랑받는 광주시립극단이 될 수 있도록요.” /최명진 기자

### 민주·인권·평화 메시지 담은 취임작 ‘양림’, 광주 정체성 담아낼 것 극단 내 인적구성 시스템 개선...지역 상생·협력 선순환 구조 마련

지난 17일 만난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은 임기 내 시립극단만의 차별성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원 감독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연출가이자 작가다. 전남대 재학 시절인 1983년과 1985년에는 그가 쓴 희곡이 전국대학생연극대 대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광주연극협회에서 약 17년간 이사·감사부터 부회장, 회장직까지 수행하며 현장에서의 경험 또한 두루 갖추고 있다.

즐거운 지역 연극계에 몸담아 왔기에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는 게 원 감독의 이야기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취임작으로 선택한 창작희곡 연극 ‘양림’은 각별하다. 2022년 남독극 형식의 쇼케이스 공연이 스토리 전달에 집중했다면 오는 11월 본공연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광주만이 지닌 기질 내지는 장소에 관한 것들이 충분히 묻어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양림들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인물들의 ‘선택’이 극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시기까지 양림에 살았던 사람들이 곧 광주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 <207>육십사괘해설 : 59. 풍수환(風水渙) 上

역경의 오십 아홉번째 괘는 풍수환(風水渙)이다. 환(渙)은 ‘흩어지다’는 환산(渙散), ‘임금의 명령을 널리 알리다’는 환발(渙發)의 뜻으로 흘러서 널리 흩어진다. 큰 수원(水源)에서 물이 가능하게 흘러서 분산한다는 의미이다.

풍수환(風水渙)	渙 亨, 王假有廟, 利涉大川, 利貞	卦 象
渙其血 去逖也 无咎	渙其大號 渙 王假 无咎	順水行舟之謙
渙其躬 无悔	渙其羸 无咎 匪夷所思	順風駕帆之象
渙奔其机 悔亡	用振馬社 吉	大風吹物之象
渙其階 悔亡		萍上相逢之意

환괘에서 분산하는 상의(象意)를 보는 것은 삼양삼음(三陽三陰)괘로 천지비의 비색(否塞)함이 막혀 통하지 못했던 것이 사효 일양과 이효 일음의 서로 교역(交易)해 환괘(渙卦)가 됨으로써 비색의 상태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단전(象傳)에서는 ‘강(剛)이 와서 궁하지 않고 유(柔)가 밖에서 위(位)를 얻고 위로 함께 한다’고 해 ‘강래이불궁 유득위후외의상동(剛來而不窮 柔得位乎外而上同)’이라고 설명한다.

내외괘를 살펴보면, 내괘 감(坎)은 겨울, 얼음의 물이고, 외괘 손(巽)은 늦은 봄의 따뜻한 바람으로 손풍을 가지고 얼었던 것을 녹여서 흩어지게 하는 상에서 환산(渙散)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춘풍이 살얼음을 녹여 버리는 상이다.

이를 인사(人事)에 적용하여 감은 근심, 어려움이고, 바람은 불어서 흩어지게 하니 사람의 근심 걱정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환(渙)이라는 괘의(卦意)이다.

대상전에서는 ‘풍행수상 환(風行水上 渙)이라 해 ‘바람이 물 위에 행함이 환’이라고 했고 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불어서 멈추지 않으니 여기서 환의 상을 취한 것이다. 바람이 물 위를 불어서 물이 흩어지는 모습이고, 손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감(坎)의 신고간난(辛苦艱難)을 멀리 날려 버린다는 이미지이다.

환괘의 상의(象意)와 같은 괘가 뇌수해(雷水解)이다. 해괘(解卦) 역시 내괘 감(坎)이고 이 감이 얼어있는 것을 외괘 진(震)이 따뜻함, 고동(鼓動)으로 해산(解散)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해괘에서는 진(震)이 위세를 떨쳐 움직임으로써 감(坎)을 녹여 풀어준다. 즉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기(詐欺), 간사스러움, 음란함 등의 육체적이고

## “환 형, 왕격유묘, 이섭대천, 이정”

<渙 亨, 王假有廟, 利涉大川, 利貞>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고, 환괘에 있어서는 감(坎)을 손(巽)을 가지고 환산(渙散)시키는 것은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것이다.

서괘전에서 환괘를 태괘 다음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기뻐한 후에 흩어진다. 그러므로 태괘 다음에 환괘로써 이어 받는다’해 ‘열이후산지 고수지이환(說而後散之故受之以渙)’이라 했다. 너무 좋아 기뻐하고 있다 보면 계를 리져서 모든 일이 흩어져버리니 기뻐이라 하는 태의 다음에 분산한다는 환의 괘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잡괘전에서도 ‘환은 떠나는 것’이라고 해 ‘환이아(渙離也)’라고 말했다.

환괘의 상하괘 간의 관계를 보면, 감괘가 하괘에 있어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고 있는데 감수의 이러한 이전투구를 막기 위해서는 사효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환괘의 육사는 손괘의 주효로서 유연한 음으로 강력한 힘은 아니나 유연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감수의 이전투구를 해결하고 있다.

마치 따뜻한 춘삼월의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니 어려움이 흩어진다고 해서 ‘환괘(渙卦)’라 한다.

바람이 물 위의 배를 움직이는 상으로, 손풍에 돛을 달고 물 위를 달려 나가면 어려움도 해결되고 곤란에서 탈출하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격랑(激浪)의 파도가 일어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반면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나 병 등은 어려워지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상하괘 간의 상을 살펴보면, 물을 따라 배가 나아가는 순수행주지과(順水行舟之課)의 모습이요 손풍에 돛을 달고 있는 순풍가범지상(順風駕帆之象)이며, 큰 바람이 만물을 불어버리는 대풍취물지상(大風吹物之象)이고 흔들리는 부평초가 서로 만나는 평상상봉지의(萍上相逢之意)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풍수환괘(渙卦)의 과사는 ‘환 형, 왕격유묘, 이섭대천, 이정(渙 亨, 王假有廟, 利涉大川, 利貞)이다. 즉, ‘환괘는 형통하다. 임금이 정성을 다해 종교에서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 큰 하천을 건너면 이롭고 정도를 지키면 이롭다’는 뜻이다.

환은 멍처져 있는 것을 부드럽게 해 흩어지게 하니 형통하다. 부드럽게 되면 나타내고 흩어지면 떨어뜨리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흩어진 인심(人心)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법이 ‘왕격유묘(王假有廟)로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동시에 큰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이섭대천(利涉大川)’으로 큰 사업, 어려운 일 등을 일으켜 인심(人心)을 이에 집중시킴으로써 민심(民心)이 나타내 지는 것을 막고 긴장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큰일은 단순히 인심이 모이기 때문에 공허(空虛)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심을 끌 정도로 매력 있는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정(利貞)이다.

상전에서는 ‘선왕이 이를 본받아 상제께 제사를 드리며 묘당을 세운다’고 해 ‘선왕이향유제묘(先王以享于帝立廟)’라고 덧붙이고 있고, 환괘의 주효인 육사의 효사에 ‘환에 그 무리가 모여 있고 환에 언덕이 있다’고 해 ‘환기군 환유구(渙其羣 渙有丘)’라 말해 단사(象辭)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혀 강조하고 있다.

단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강이 와서 궁하지 않고(剛來而不窮) 유가 밖에서 위를 얻고 위로 함께 함이다(有得位乎外而上同)’라고 하는 것은 천지비(否)의 외괘에서 와서 구이로 된 내괘 감(坎)의 주(主)는 ‘부유형(孚維亨), ‘감통(坎通)’이라고 해 고통 없이 없고, 또 외괘에 위치를 얻고 성괘주(成卦主)가 된 육사는 환산(渙散)을 사령하는 구오와 생각을 같이하고 환(渙)의 형통함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왕이 사당에 이룬다는 것은 그 중정(中正)의 정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인심을 모으는 것으로 주괘의 주효가 강건중정(剛健中正)인 것을 보고 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巽)을 나무로 해 감의 물위에 뜨는 괘상을 보고 대천(大川)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설명하고 있다.

점사(占事)에서 서죽을 들어 무동(無動)의 환괘를 얻으면, 마음 속의 근심 걱정이 흩어진다는 하나의 관점과 사람의 마음이 게으름에 빠져 긴장을 잃는다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점고(占考)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비괘(否卦)의 변화에 의해 환괘(渙卦)가 이뤄졌음에 착안해 지금까지 막혀 풀리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고생과 어려움에서 해방돼 밝은 앞날이 열린다고 볼 수 있고 밖으로부터 원조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부의 중심이 돼 곤란을 담당 해결해 줄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을 미루 추상(推想)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하는 일이 순조로운 길 경우에는 그 평안(平

安)에 익숙해져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해 지거나 태만해져서 신용을 잃거나 의지하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안이(安易)한 생각이 들게 된다는 판단도 필요하다.

따라서 운기, 운세 여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어렵고 곤란했던 일은 풀려가나, 새롭게 추진하는 일은 마음이 헤아려지고 나타남으로 인해 곤란함을 처한다. 바라는 것 등도 환산(渙散)의 폐에서는 좋지 않다. 단, 오랜 바람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막히고 닫혔던 것이 풀려서 광명을 찾는다.

사업, 상행위에 있어서는 위태롭게 기울어져 가는 형세를 면하기 위해 모험을 시도하는 일 등을 하는 기미가 보이는데 결코 불가한 것은 아니나 분수를 알아야 하고, 자력(資力) 여하가 문제가 아니라 인심(人心)의 협동 여하가 중요하다.

교섭, 담판, 거래 등은 흩어지게 되는데 일음(一陰)이 곤(坤)의 동료를 떠나 상대방에 불어 바람같이 사라지고 내부에는 밖에서 들어와 감(坎)을 만드는 자가 있다. 주수, 거소에는 변동이 있고 이전(移轉)에 의해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새로운 혼인은 이루어질 듯하나 결국 무위(無爲)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인연이 맺었던 자(否卦)는 그 고민이 해소돼 결혼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잉태는 조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고 임신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안산이다.

병은 사괘(姤卦) 대간(大艮)의 체내에 감독(坎毒)을 품고 있는 상에서 식독(食毒), 감손(坎巽) 양괘(兩卦)로 성격 질병, 치질, 여자의 산후질한 등이고, 환산의 폐이기 때문에 경증(輕症) 등은 곧 쾌유되고 오래 끄는 병도 병고해탈(病苦解脫)의 길점이다. 그러나 ‘각유묘(假有廟)의 효사를 보아 발병으로 중태가 되는 병은 흉조가 있다.

기다리는 것은 먼 곳의 일이거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식이 있으나, 조금만 기다리면 바대로 되지 않는다. 가출인은 물 위의 떠있는 배의 상으로 간난유랑(艱難流浪)의 모습이 보여 바다 건너 멀리 갔다. 여자의 경우는 비괘(否卦)의 음양이 바뀌어 남자는 손(巽)이 되고 여자는 감(坎)이 돼 복중(腹中)에 머무는 상으로 괴로움, 남자의 뒤를 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실물은 이미 분산되었거나 매각돼 찾을 수 없고 오래된 분실물은 우연히 발견될 수 있다.

날씨는 상의 모습대로 풍우(風雨)가 온다. 우중(雨)이라면 환산되어 개일 것으로 보고, 겨울에는 동남방에서 부는 바람으로 온 기(溫氣)가 있고 비가 온다.



<동인·도시계획학박사(062-654-4272)>